

연중 제13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관한 기도의 날)

제 1 독서 : 신명 30, 1-5  
제 2 독서 : 에페 4, 29-5, 2  
복 음 : 마태 18, 19-22

# 숲 정 이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 주실 것이다.”  
(마태 18, 19b)

## 강 론

## 소 리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정양현 신부 / 장수 천주교회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이날을 앞두고 우리 민족은 그동안 끈질기게 괴롭혀 온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한바탕 큰 몸살을 앓았다. 대화 - 제재 - 도전 - 응전 - 대화! 일관성 없는 정부의 대북정책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과연 이 민족은 누구의 손에 놀아 나고 있는가! 핵을 연료로만 쓰겠다는 북한의 김 주석인가! 미국의 패권 주의인가! 국내의 강경 보수 세력인가! 거기에 부화뇌동 하는 매관 언론인가! 술래가 보이지 않는 끝없는 숯박꼭질 속에 오늘의 우리는 월드컵 축구공처럼 두리몽실 굴러가고 있다. 결국,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반세기를 굳혀온 체제 논리가 우리의 닫힌 마음을 화해와 일치의 삶으로 변화시켜, 활짝 열어 제켜 나가기엔 역부족인 듯 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다. “너희 중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든 다 들어 주실 것이다.” 기도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 하는 것임을 재천명하신다. 마음을 모아 구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바로 사도는 오늘 독서를 통해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남(북한)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북한)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이 땅에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우리들의 무관심한 마음, 일치와 화해할 뜻이 조금도 없는 바위와 같은 불신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뱉은 무절제한 독설이다.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진심으로 이 민족의 아픔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 언론의 책임

6월은 44년 전 한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서로의 목숨을 앗아갔던 6.25동란이 발발했던 달이다. 그래서 해마다 이달이 되면 한반도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비참했던 당시를 회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신문과 방송을 보고 있자면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이기 일쑤여서 불안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신문과 방송이 미국 타임즈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그대로 베껴내는 등 미국 언론이나 정부의 입장을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침착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을 과거의 군사정권 때문에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몰아 세우고 있다. 결국 라면·가스·구급약품 등의 사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 군사정권이 ‘안보’를 정권유지 수단으로 삼았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은 기우라고밖에 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안보의식 속에 신문과 방송에 눈과 귀를 모으고 조그마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란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밤낮이 없다. 그러나 국내정세가 심상치 않은 지금 빠른 소식보다는 올바른 비판으로 국민들이 현실을 정확히 알고 침착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문]

### 숲 정 이 산책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메시지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날을 맞이하여 한형제인 북한교회와 북한동포들을 기억하고, 반세기 동안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우면서 불복하여 온 우리 민족사회가 참다운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교회의에서 이 기도의 날 명칭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꾸었던 1992년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서로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큼 희망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91년 말에 채택된 '남북합의서'는 양측 당국자들이 서로의 존재양식을 인정하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삼가며,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경쟁을 피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 등을 엄숙히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때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파생되게 될 모든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까지도 약속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대화가 없는 곳에는 은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말씀이 없는 곳에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거부한 남북관계는 민족사회의 구원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누구에게 탓을 돌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하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관심하였고, 또한 기도에게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마주 앉아서 화해와 협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결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너무 낙관하면서 남북간에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이를 은총으로 껴안아 실제로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 10)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쁜소식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형제의 생명을 빼앗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反)생명현상인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금년 1월 1일인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통하여 온 세계가 평화를 염원하고 있으며 또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지향에 맞게 진실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평화는 용서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용서와 사랑이 담기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성과 희생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이 평화의 복음을 외면한 채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전쟁준비에 골몰한다면, 머지않아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이 하루빨리 '남북합의서'의 정신으로 되돌아와 대화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구하고 갈라진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화해와 일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된 형제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 이 동 호 아빠스

주방요리기구 전문점  
**비전사**  
카이젤 인덕션렌지, 카터기,  
테크노세라믹, 녹즙기, 마마계주부  
**최학만(바오로)**  
송계순(소화 데레사)  
☎ (0652) 254-7928~9  
FAX (0652) 254-2931

**다사랑 미용실**  
퍼머 전문점  
최규팔(스테파노)  
공계자(스테파니아)  
삼천동 효문국교 정문 앞  
쌍용아파트 앞  
☎ 225-3224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사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리틀핸즈**  
·원목가구 주문 제작  
·DIY 나무모아 전문점  
류수(에밀리오)  
김경숙(아기 막달레나)  
효자1동 파출소앞  
☎ (0652) 223-6422

잡간

7. 성실한 바보들

최근 부모를 살해한 한 유학생 때문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실로 엄청났다. 어느 교육전문가는 이 땅의 어머니들은 "성실한 바보들"이라고 표현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지만 참다운 인간 교육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

그렇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학교 교육에만 열을 올릴 뿐 그 외의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다. 입신양명과 일류 추구라는 이 땅의 전반적인 교육 풍토만을 탓할 게 아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가정 교육, 즉 가정에서의 참된 인간 교육이다. 어떤 교육이든 그 근본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부모들이 일차적인 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사로서의 부모가 해야 할 첫째 과제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말을 건네는 대화생활이다. 그 동안 하지 않던 자녀와의 대화는 마음만 먹는다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부모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자녀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녀들을 절대로 어른의 시선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바쁘다는 핑계나 부모의 입장만 내세우면 대화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바쁜 이 부모를 이해해다오"란 말은 어린 자녀들이 이해할지는 몰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제공

요심이 (1087) 김병오



교구 소식

- ※ 교황주일 2차 헌금 : 7월3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 1. 축! 견진 : 7월2일(토) 오후3시 나바위 성당
- 2. 천호 피정 안내 : 6월30일(목) 주제-활력의 원천인 가정, 강사-한봉섭 신부, 7월2일~3일 주제-성서피정(시편 묵상), 강사-이상일 신부 문의 73-6600
- 3. 사제 평의회 : 7월28일(화) 오전10시 교구청
- 4. 가톨릭 언론인회·방송인회 공소방문 : 7월3일(일) 오전9시 가톨릭센터
- 5. 성서교실 특강 : 7월1일(금) 오전10시·오후8시 전동 성당, 강사-정태현 신부
- 6.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제20차 정기총회 : 6월28일~30일 나바위 성당 교육관, 강사-이병호 주교, 양상렬 회장, 대상-각 교구임원, 각 본당여성부장, 주관-전주교구여성연합회
- 7. 휘콜라레 모임 : 7월3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대상-국교에서 일반
- 8. 여름 푸르실료 안내 : 「추천서」 접수중(마감일 소인 유효)
  - ① 남성 제48차-7월28일~31일 접수 마감 6월28일
  - ② 여성 제46차-8월4일~7일 접수 마감 7월4일
- 9.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94년 여름 농촌 활동 : 6월29일~7월7일, 장소-정읍군 산내면 두월리, 매죽리, 산외면 구장리, 평동
- 10. 레지오 단원 교육 : 6월27일(월) 오후7시 창인동 성당, 강사-김봉희 지도신부, 고흥석 레지아 단장, 대상-창인Co, 신동Co, 산하 전단원
- 11. 성모 기사회 : 7월2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 축! 명명 : 29일(성베드로, 바오로) 서석기, 김병엽, 김영신, 박창신, 엄기봉, 문규현, 이순성, 김희남, 박인호, 정양현, 방의성, 김교동, 고봉호, 이득재 신부님

**의사부부피정 초청**  
 가정의 해를 맞아 의사부부 피정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7월3일 10시30분~후 4시  
 · 장소 : 치명자산 성당  
 · 지도 : 범석규 신부  
 · 연락처 : (0652)83-3113  
 전북의사회회장 이종두 백

**순교자 이 루갈다 몸고상(십자가) 고산 성당 제작 판매'**  
 · 大-13,000원  
 · 小-7,000원  
 · 판매처-고산 성당  
 ☎ (0652)71-4171

**용머리 바자회**  
 <신축기금 마련>  
 · 때 : 9월9일~12일  
 · 장소 : 용머리 성당

**영창피아노 중앙대리점**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겐  
 · 24개월 장기 할부 판매  
 · 교유님 조율시 20% 할인  
 우 영 순(프란치스코)  
 신 중앙상가 1층  
 ☎ (0653)858-9109  
 호출기 : 012-676-5772

**엄마사랑 서부점**  
 이유식·당뇨식·건강식 42종 우리 농산물로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박 중 환(유스띠노)  
 이 미 연(마 리 아)  
 효자동 성당 앞  
 ☎ 225-4350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겐,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 태 우(알풍소)  
 ☎ 88-7717-8

**람곡 하수정(헬레나) 작품전**  
 · 때 : 7월1일~7일  
 · 곳 : 전북예술회관 (제1 전시실)  
 · 초청 : 7월1일 오후 6시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연중 제13주일(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축! 견진: 견진성사 받으신 형제 자매님들께 성령의 충만한 은총 받으시길...

1. 견진성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사목회 상임: 1일 저녁미사 후
3. 병자 봉성체: 1일 오전중  
\* 병자가 있으신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
4.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7월부터 시작  
· 수요일-저녁미사 후  
· 일요일-장엄미사 후  
· 장소-지하 교리실
5. 전입을 환영합니다.  
· 이계수(요한)-기린상1반 ☎86-2960
6. 모임: ①꾸리아(오늘,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②제대회(28일 어머니미사 후)  
③빈첸시오회(30일 전 10시30)  
④울뜨레아(3일 장엄미사 후)
7. 다음주일(3일)은 교황 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를 위해 기도바랍니다.
8. 금주 청소: 인후3, 4반. 차주 청소: 인후6, 7반

☐ 지난주 봉헌금: 1,062,730원 ☐ 교무금: 1,001,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 범 부

◎ 연중 제13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축! 영명: 7월3일(다음주일)은 이종원(토마스)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1. 반장회: 6월26일(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7월3일(다음주일) 오후 2시
3. 청년회: 7월3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많은 참석바람)
4. 중·고 여름 캠프: ①매-7월20(수)~7월22일(금)  
②꽃-고당 수련원  
③대상-중·고등부학생 모두  
④참가비-8천원
5. 성전 보수헌금 신입하신 분(지난주): 안용명(모니카)-30만원. 유영상(노렌조), 이양욱(테보라) 2명-각 20만원. 강병서(리노), 이덕순(마리아), 이소남(테레사) 3명-각 10만원. 익명 4명-각 10만원. 이순덕(테레사)-6만원. 최순이(린다), 장덕현(스테파노) 2명-각 5만원. 김옥례(안나)-1만원.  
\* 지난주 신입액: 1백6십2만원  
6월19일 현재: 2백8십1세대 신입함  
\*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헌금 신입하신 분들께서는 남부하여 주시고 뜻이 있으신 분은 신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다함께 참여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969,600원 ☐ 교무금: 1,330,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 삼 호  
사목회장 황 일 평

◎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날입니다.

1. 교황주일 2차헌금: 7월3일
2. 교무금 미납되신 분은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건회: 3일 공식미사 후
4. 사목회: 3일 저녁미사 후
5. 성당 청소: 7월2일(토) 황금강진Pr, 성모성년Pr
6.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강주호 부부  
봉헌-송명진 가족
7. 차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정승관 부부  
봉헌-안철조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17,260원 ☐ 교무금: 1,279,4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 완 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 명 형

◎ 연중 제13주일(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1. 금주: 성마리아 꼬미시움(오후 2시)
2.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 신청-30일까지, 대상-국교 3학년부터 교리 시작-7월5일부터
3. 성가집회: 7월1일(금) 오전 11시
4. 차주: ①교황주일(2차 헌금)  
②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재속굴라라형제회(후 1시30분)  
④요새회(후 6시)
5. 정삼권, 정성만 전임 보좌신부님 군중 임관식: 7월1일 참석희망자 사무실에 접수(출발-전 6시)
6. 미사시간 안내  
· 주일-오전 5시30분, 9시, 10시30분(공식미사) 오후 3시, 5시, 7시  
· 월요일-오전 5시30분  
· 화~토요일-오전 5시30분, 오후 7시
7. 감사합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행사 단체복 기증(성화회)

☐ 지난주 봉헌금: 1,778,43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1. 본당 발전을 위한 헌금: 오늘 미사중
2. 모임: ①사목회-2일(토) 저녁  
②성모회-공식미사 후  
③꾸리아, 요새회-다음주일
3.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의 날
4. 교황주일: 다음주일, 2차 헌금
5. 제대꽃 봉헌: 김분임(엘리사벳)-3만원
6. 주일학교 간식: 손준우-2만원
7. 감사: 요새회, 성지순례에 협조하여 주신 분들께
8. 금주 청소: 바다의 별Pr
9. 차주 청소: 순교자의 모후Pr
10.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최경림 ②김갑자  
봉헌-김중식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남현준 ②송정자  
봉헌-이수복 씨 부부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 I.N.R.I.: 로마 총독 본시오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 써 붙인 명패. 그의 죄목을 가리킨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 라는 뜻이다. 라틴어 Iesus Nazarenus Rex Iudaeorum의 첫 글자만 따서 INRI로 하여 십자가 상 위 에 붙인다.

☐ 지난주 봉헌금: 375,400원 ☐ 교무금: 158,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장 삼 근

◎ 본당 교우 친교의 날: 7월3일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본당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빌며 나눔찬치에 모든 신자분들께서 함께 하시어 권교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냇다차 회두 연교 주간: 각 Pr별로 배당받은 활동지시를 책임 완수하시고 결과 보고를 해주십시오.
2.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 원서 접수: 5천원. 7월10일까지. 부모님께서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친히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반 기도회 순회: 4, 5, 6, 7구역 요일 시간 보고
4. 교도소 세조사 생일잔치: 29일 후 1시 후원회원 함께
5. 유아 세례: 7월2일 후 3시 사무실에 접수
6. 병자 봉성체: 30일 전 9시,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람
7. 회의: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다음주일 후 2시30분  
한빛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8. 오늘은 교무금 납부주일: 사무실에 확인하시고 미납된 교무금은 본당살림을 위해 납부바랍니다.
9.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세대주-이정숙(무갈다) 88-3787  
장영택(그레고리오) 87-7422 유현순(글라라) 88-9457  
심영택(안셀모) 225-5528 윤정호(사도요한) 87-8441  
김미숙(헤레나) 86-1826 정점옥(엘리사벳) 85-3871

☐ 지난주 봉헌금: 1,151,500원 ☐ 교무금: 860,000원